

HBM·서버용 SSD 등 수익성 개선... AI 기반 신규시장 선점

〈고대역폭메모리〉

» 1면 '삼성전자 작년 4분기 실적'서 계속

AI수요 대응 메모리 등 시너지↑
연내 HBM3E 생산 수익성 확보
모바일 AI, 글로벌 스탠다드 목표
'AI 프로세서·타이젠 OF' 본격화

연간 기준으로는 투자금액이 53조 1000억원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4분기 시설투자만 16조4000억원이다. 반도체에만 14조9000억원, 중장기 수요 대응을 위해 평택사업장 클린룸 확보와 R&D, 첨단 공정 생산 능력 확대를 위해서다.

미국 테일러 공장 인프라 투자도 있었다. 디스플레이도 차세대 OLED와 플렉시블 제품에 투자를 집행했다고 밝혔다.

미래 반도체 시장을 위한 투자 기조도 소개했다. 재고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지만 제품별로 차이가 있는 만큼 일단 감산 기조는 이어간다는 계획,



삼성전자가 중동 최대 명절인 라마드에 이어서 이어지는 '이드 알 피트르(Eid al-Fitr)' 축제 기간을 맞아 지난 21일 세계 최대 쇼룸 '도바이물'에 '스마트싱스 팝업스토어'를 오픈했다. 팝업스토어를 찾은 현지 소비자들 사이 스마트싱스 기반의 다양한 제품간 연결 경험을 비롯한 삼성전자 최신 제품을 체험하고 있는 모습. /삼성전자

대신 제품별로 수준을 조절하고 HBM과 미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투자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AI 수요에 대응해 메모리와 파운드리, 패키지 등과 시너지도 극대화한다.

지속가능한 경영에 대한 의지도 분명히 했다. 에너지 공동협력 이니셔티브와 CF연합에 참여하고 있으며, 갤럭시 S24 시리즈에는 재활용 희토류와 강철

을 적용하는 등 재활용 소재 활용도 적극 확대 중이다.

◆올해 '상저하고'

삼성전자는 올해 실적 회복을 확신하면서도 과도한 기대는 경계하는 모습이다. IT 상황이 점진적으로 회복하겠지만 사업별로 온도차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상반기까지는 정상화 수준, 하반기부터 성장이 다시 본격화

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도체는 1분기 비수기 속에서도 D램은 물론 낸드 수요도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며, HBM과 서버용 SSD 등 첨단 제품에 적극 대응하며 수익성을 개선하는데 집중한다고 밝혔다. 연내 12나노급 32Gb DDR5 도입과 HBM3E 적기 생산 등으로 수익성을 확보하는데 주력한다.

다만 비메모리 부문에서는 다소 조심스러운 입장이었다. 1분기 온 디바이스 AI로 수요가 개선되겠지만 실적 회복세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며,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춘다.

스마트폰 사업은 AI 스마트폰 선점과 폴더블 스마트폰을 발판 삼아 성장하겠다는 포부를 숨기지 않았다. 갤럭시 S24 시리즈에 더해 폴더블 스마트폰까지 폼팩터에 최적화된 AI 경험을 제공한다는 계획, 플래그십 출하량 투자 및 수 성장과 시장 성장률을 상회하는

실적과 함께 '모바일 AI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노린다. 네트워크도 5G 핵심칩 등 기술 리더십을 강화하며 해외 사업 확대를 노린다.

TV 사업에서도 비수기에 따른 수요 감소세를 예상하면서 프리미엄 수요 견조를 전망하며 수익성 확보에 주력한다. 차세대 AI 프로세서와 타이젠 OF를 본격화하며 초연결 경험과 서비스 혁신을 통한 'AI 스크린 시대'를 예고했다.

생활 가전 역시 AI 기반 프리미엄 제품 확대와 스마트싱스 기반 연결 경험을 글로벌로 확대하며 신규 시장까지 선점한다는 목표다.

한편 삼성전자는 잉여현금흐름 50%를 환원하고 매년 9조8000억원을 배당한다는 3개년 주주환원 정책을 마무리하면서 주당 보통주 361원, 우선주 362원 기말 배당을 결의했다. 아울러 실적 부진과 불확실성 속에서도 올해부터 3년간 주주환원 정책을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유통업계 '혼설족' 겨냥 프로모션 경쟁... 전·잡채·도시락 등 '붐물'

〈혼자 설을 보내는 사람들〉

이마트24 갑진년 '값진명절도시락' CU '설 궁중식 소불고기 도시락' 세븐일레븐 '청룡해모듬전' 선배

올해 설 대목을 앞두고 국내 유통업계가 '혼설족'을 겨냥하고 나섰다. 혼설족은 '혼자 설을 보내는 사람들'을 뜻한다. 특히 편의점 업계 4사가 적극적이다.

31일 편의점업계에 따르면 CU·이마트24·GS25·세븐일레븐 등 주요 편의점업체들이 혼설족을 위한 다양한 상품을 경쟁적으로 선보이고 있다. 가성비 뿐만 아니라 간편하면서도 푸짐하게 구성한 게 특징이다.

이마트24는 갑진년 설날을 맞아 '값진명절도시락'을 판매한다.

값진명절도시락(7900원)은 명절 음식인 잡채, 돼지고기구이, 전 3종(해물완자, 오색모듬전, 김치전), 도라지볶음, 고사리볶음, 시금치무침, 볶음김치 등 9가지 반찬으로 푸짐하게 구성됐다.



모델이 GS편의점에서 건강에 관심이 많은 20~30대를 공략하기 위해 출시한 '염소전골 간편식'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GS리테일

특히, 이번 명절도시락은 집에서 바로 만들어 먹는 것과 같은 맛을 구현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밥과 반찬의 맛을 끌어올리기 위해 세심한 노력을 기울였다.

CU도 혼자서 다양한 명절 음식을 간편하고 푸짐하게 즐길 수 있도록 '설날 궁중식 소불고기 도시락(7200원)'을 출시한다.

CU는 편의점 간편식의 주 소비층인 1인가구의 증가세와 더불어 지속되는 고물가 속 외식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을 고려해 올해 설에도 명절 간편식의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같은 경향에 맞춰 CU는 이번 설에도 1인 가구 고객들이 쉽고 간편하게

다양한 명절 음식들을 즐기며 명절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설날 궁중식 소불고기 도시락'을 내놓는다.

명절 대표 음식인 소불고기를 메인으로 구성한 프리미엄 정식 도시락으로, 자작한 국물을 밥과 함께 비벼 먹기 좋은 궁중식 소불고기를 담아 달짝지근한 양념과 깊고 진한 육수를 맛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밖에도 더덕 무침, 고사리나물 등 삼색 나물 반찬까지 제대로 된 한끼를 완성했다.

세븐일레븐은 MZ 혼설족을 겨냥했다. 주현영 명절 도시락 2종 '청룡해모듬전 도시락'과 '청룡해모듬전&김치제육'을 출시한다.

'청룡해모듬전도시락'은 가정식 소불고기와 너비아니를 메인으로 명절에 많이 먹는 전과 나물로 구성한 도시락이다.

흑미밥에 소불고기, 너비아니와 함께 계란말이, 어묵볶음, 콩나물무침, 시금치무침 등 나물과 오미산적, 부추&김치전, 두부전을 구성해 명절 분위기를

를 느낄 수 있다.

세븐일레븐은 자사 도시락 홍보 모델인 'MZ의 아이콘' 주현영의 단아한 한복차림 이미지를 명절 도시락 패키지에 적용했다.

이은아 세븐일레븐 푸드팀 MD는 "최근 나 홀로 명절을 보내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연휴 기간 편의점 도시락을 찾는 고객이 계속 늘고 있다"며 "도시락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명절 분위기를 낼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말했다.

GS25는 명절 대표 메뉴인 소불고기, 잡채, 모듬전, 나물, 명태회 등 9찬으로 구성한 '새해복많이바란서용 도시락'을 출시했다. 이 메뉴는 3개월 넘는 개발 과정을 거쳐 완성한 제품으로 가격은 7000원대다.

이밖에 hy도 온라인 몰 '프레딧(Fredit)'에서 혼설족을 겨냥한 간편식 라인업을 내놨다. 대표 제품은 '잇츠온 국탕류 선물세트', '잇츠온 사골떡만둣국' 세트 등이다. /최빛나 기자 vitna@

은행권, 소상공인 이자환급... 188만명에 평균 80만원

소상공인 금리 연4% 초과 환급
내달 5~8일까지 최대 300만원
금리 연7% 이상, 대환대출 확대

다음달 5일부터 은행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은 금리 연 4% 초과분에 한해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다.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 연 5~7% 금리로 대출을 받은 경우도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연 7% 이상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환 프로그램을 확대해 연 5%대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31일 금융기관과 함께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중세트'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중세트는 ▲은행권 이자환급 ▲중소금융권(2금융권) 이자환급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를 구성된다.

◆은행, 2월 5~8일 이자환급

우선 은행은 오는 2월 5일부터 개인사업자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자를 최대 300만원까지 환급해 준다. 대상은 지난해 연 4%를 초과하는 이자를 납부한 개인사업자다.

2023년 말까지 이자를 납부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차주는 연 4%를 초과한 이

자를 최초 집행시 모두 환급받는다. 1년 미만인 차주는 지난해 납부한 이자분을 최초 집행시 받은 뒤 올해 납부한 이자분은 분기별로 환급 받을 예정이다.

최초 집행시기는 2월 5일부터 8일까지이며, 환급을 위한 별도의 신청절차는 없다. 금융위는 약 188만명의 개인사업자가 1조3600억원의 이자를 환급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1인당 평균 약 73만원 수준이다.

◆2금융권 5~7% 대출... '신형' 시 이자환급

아울러 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

드사, 캐피탈) 등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도 금리 연 5% 초과분에 한해 최대 15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대상은 이들 금융기관에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차주이며, 5% 이상 금리에 한해 이자환급이 이뤄진다. 예컨대 연 5.5%의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차주는 0.5%포인트(p)를 일괄 차감한 기준으로 환급이 이뤄지고, 연 7%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차주는 2%p를 일괄 차감한 기준으로 이자가 환급된다.

단, 이들 금융기관에서 이자를 돌려받기 위해선 신청이 필요하다. 신청시 매분기 말일(3월29일, 6월28일, 9월30일, 12월31일)에 이자를 환급해 준다. 금융위는 차주가 모두 이자환급을 신

청할 경우 수혜대상 40만명 중 24만명이 1분기에 1800억원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1인당 환급규모는 평균 75만원이다.

◆금리 연 7%이상 대출... '대환 프로그램' 이용

이밖에도 금융위는 연 7% 이상의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앞서 지난 2022년 9월부터 시행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지난 19일 기준 소상공인의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 2만3000건을 연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줬다. 이로 인해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한 소상공인의 대출금리는 평균 10.06%에서 5.48%로 약 4.58%p 낮아졌다. /나유리 기자 yul115@